



사라져가는 방재림

남해안 방재림 현황
1980년 574ha → 2010 428ha
30년간 146ha 사라져

서해안 방재림 현황
1980년 2398ha → 2010 2305ha
리조트 등 들어서며 93ha 사라져

전남 서·남해안 방재림 급감
지진 해일 등 발생 땀 무방비
잇단 기상이변 대책 마련 시급

전남 서·남해 해안 방재림이 턱없이 부족, 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잇따르는데다, 올해 강력한 엘니뇨(평소보다 높은 동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세계 각국에 기상이변을 초래하는 현상)도 예고되면서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안 방재림 감소, 재해 무방비=15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해안 방재림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전남 서·남해안의 경우 지진 해일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서·남해안 항공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0년 574ha에 이르던 남해안 해안 방재림은 30년 뒤인 2010년 428ha로 146ha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남의 경우 무려 69.6ha의 해안 방재림이 사라져 국내 동·서·남해안 해안 방재림 중 감소세가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남해안 지역 진도(45.7ha)·강진(11.7ha)·장흥(18.2ha) 등의 해안 방재림도 각각 감소했다.

서해안 방재림도 비슷했다. 2398ha에 달할 정도로 뾰족했던 1980년 항공 사진과 달리, 30년 뒤인 2010년에는 2305ha로 93ha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군(60.1ha)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지난 2005년 대규모 갯벌해양타운을 목표로 리조트를 건설하는 하, 스파·고급호텔·콘도를 비롯, 대규모 첫갈광장

(3000평형) 등이 조성되면서 많은 면적의 해안 방재림이 사라졌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분석했다.

같은 기간 동해안 해안 방재림은 177ha로 감소세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은 해안방재림이 사라지는 등 훼손되면서 지진 해일 등 자연 재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림과학원은 최근 “국내 지진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 방재림 규모(폭)에 따른 해일 에너지 저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해안이 지진 해일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남해안의 경우 해안방재림 평균 폭이 29m에 불과, 방재림 규모에 에너지 감소율을 감안하면 지진 해일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산림과학원측 설명이다.

◇조성할 데는 많고, 돈은 없고=전남도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지원 및 자체 예산 등을 더해 32ha(30억)의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는 등 공을 들여왔다.

전남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올 해 해안 방재림 조성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강진·무안·고흥·신안 등 6개 시·군에서 무려 136개소(199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수준의 방재림 조성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올해도 예산을 감안하면 교차 23ha 수준에 불과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가오는 재해공포



세균이 이렇게 많아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15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균오염도를 측정할 가운데 어린이들이 세균 수치가 많이 나오자 놀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경부, 큰빛이끼벌레 실태 조사 착수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 환경부가 최근 4대강 수질 오염의 영향으로 외래종인 큰빛이끼벌레(사진)가 대량번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긴급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 등 4대강 유역 환경청 및 물환경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11월까지 4대강 분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큰빛이끼벌레 분포 실태를 조사에 착수했다.

큰빛이끼벌레의 국내 분포 실태와 독성·유해성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큰빛이끼벌레의 자체 독성과 함께 소멸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원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큰빛이끼벌레는 주로 고여있는 물속에 사는 무척추동물이면서 태형동물의 한 종류다. 물속의 바위나 수초, 나뭇가지, 그물망 등에 달라붙어 세균과 조류, 동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아 서식한다. 무리는 이끼가 바위에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개체는 빛 모양이다. 자체 독성과 별개로 해외에서는 큰빛이끼벌레가 취수관을 막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 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이 급격히 오염돼 큰빛이끼벌레가 출현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공동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영산강 분류에서는 큰빛이끼벌레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완도 금일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수사

완도 금일수협에서 근무해온 여직원이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완도경찰과 금일수협 등에 따르면 금일수협 조합장 구모씨는 지난 11일 수협 직원 김모(여·27)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3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앞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금융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김씨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뒤 지난 9일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수협 측 자체 조사 결과, 김씨는 고객 예금을 담보로 인터넷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년에 걸쳐 고객 예금을 손을 대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측은 김씨를 상대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범행은 인정하면서 구제적으로 진술을 회피,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고객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대출금 상환 기일이 다가오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일수협 수협장을 불러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은 뒤 금융사고를 일으킨 여직원 김씨와 함께 해당 수협의 금융 업무 실태 전반에 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폐쇄회로 TV(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곳곳의 안전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연말까지 개발된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안전행부는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여러 기관·부서에서 제각각 운영하는 CCTV를 한 곳에 모아 통합 대응하는 곳으로, 치안 유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말까지 120곳에 구축했으며, 올해에도 최근까지 28곳이 늘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년에 대비한 안전매뉴얼도 대폭 확충된다.

/연합뉴스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

소핑백 내 것 착각 들고갔다가...

○~백화점에서 고급 향수가 들어있던 다른 사람의 소핑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30대 주부가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37)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8층 아동복 매장 계산대 옆 의자에 놓여있던 김모(여·36)씨의 시가 11만5000원 상당의 향수가 든 소핑백을 자신의 것이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백화점 안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아동복 매장에 가기 전 같은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소핑백을 들고 왔다”며 선처를 호소.

/백희준 수사기자 bhj@

(주)오천경매 / 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특수물건 특수비법 만이 살 길이다!

- 특수물건(지분, 법/지, 유치권, NPL 등등)만이 정답입니다!
- 특수비법을 알아야 특수물건에 도전합니다!
-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십시오!
- 오직! 특수경매만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단, 상담후 본사가 결정합니다!